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현상공모 **최우수상** 수상작

딸의 **지혜**로 지킨 소중한 가정

글 조화영 부산광역시

최 근, 안전 대처 상식을 평소에 익혀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해 준 사건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일은 얼마 전 추석 연휴 때의 일이다. 늘 그래온 것처럼 추석 전날 차례 음식을 하기 위해 딸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갔다. 난 음식 준비 중에서 튀김요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날도 새우랑 오징어, 고구마 등 튀김 재료를 다듬어서 물기를 없애고 튀김옷도 적당량 준비해 두었다. 튀김기가 부엌 서랍 위쪽에 있어 꺼내려고 손잡이를 잡아들어 올리는 순간 그만 손이 미끄러워 튀김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깜짝 놀라 바닥에 떨어진 튀김기를 얼른 살펴보니 겉으로 보기에 큰 흠집은 없어 보였다. 다행이다 싶어 튀김기 바깥을 행주로 깨끗하게 닦고 전기코드를 꽂아 두었다.

명절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늘 쓰는 전기기구이다 보니, 별일 있겠나 생각하고는 튀김기에 기름을 채워서 온도를 맞추어 두었다. 먼저 새우튀김을 하려고 튀김옷을 입혔다. 그러면서 튀김기 기름온도가 올라가는지 눈으로 체크했다. 좀 전에 튀김기를 꺼내다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떨어뜨린 게 좀 맘에 걸렸지만,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듯이 보였다. 온도가 맞추어진 것 같아 튀김옷을 입힌 새우를 한 마리씩 넣었다. 새우는 튀김기름 속에 가라앉았다가 자잘한 기름을 내뿜으며 다시 떠올랐고, 어느 정도 익힌 후에 튀김기름 속에서 꺼내어 대나무 소쿠리로 옮겨 담았다. 커다란 대나무 소쿠리에는 동서가 만든 산적이 있었고, 내가 튀겨 낸 새우도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우튀김이 좀 더디게 익는 것 같고 꺼낸 새우의 튀김옷이 바삭거리지 않고 기름이 잔뜩 배어 눅눅해 보였다. 살펴보니 튀김기의 전원이 나간 것인지 튀김온도가 낮아져 있었다. 튀김온도가 낮으면 튀김에 기름이 많이 배고 튀김옷이 바삭거리지 않아 튀김의 맛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나는 튀김기 속의 새우들을 다 꺼내고 튀김기 온도를 처음 세팅한 것보다 좀 더 높이고는 튀김온도가 높아지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약 2, 3초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튀김기 전원 연결 부분에서 불꽃이 약간 튀는 게 보이는데 싶더니 순식간에 튀김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아마 작은 불꽃이 점화장치 역할을 해서 달구어진 기름이 채워져 있는 튀김기 전체로 번진 것 같았다. 거기다가 튀김기 아래 깔아 놓은 신문지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활활 타기 시작했다.



너무 놀란 나는 비명을 질렀고, 베란다에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뛰어 오시더니 어서 물을 부어서 불을 끄라고 소리치셨다. 나는 허둥대면서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 그런데 신문지에 붙은 불은 금방 꺼졌지만 튀김기의 불은 꺼지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또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려고 할 때였다. 딸아이가 "엄마! 잠시만요." 하고는 냉장고 속을 뒤져서 배추와 상추를 찾아 튀김기에 던졌다. 그랬더니 이내 불길이 잡혔고, 딸아이는 배추와 상추를 두세 번 더 던져서 남은 불꽃마저 꺼뜨렸다.



나중에 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불길을 잡는 걸 질식소화라고 한단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아직도 놀라서 허둥거리는 나와는 다르게 딸아이는 침착하게 불을 끄더니 큰아버지께 요청해서 튀김기의 전원코드를 콘센트에서 빼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다. 큰아주버님은 감전에 대비해 고무장갑을 전원코드에 한번 감고 행주를 덧감아서 전원코드를 콘센트에서 빼내셨다. 그제야 안심이 되고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시어머님과 큰형님은 딸아이의 침착함과 기지를 칭찬하고 계셨다.

“승현아!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니? 당황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불을 꺼서 하마터면 큰 불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되었어.”

딸아이는 기분이 좋아 약간 으쓱해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불조심 책에서 본 게 딱 생각났어요. 기름에 불이 붙은 경우 기름불은 물로 꺼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불을 덮어서 꺼야 한다는 걸 봤거든요. 또 전기기구에 불이 난 경우 물을 부어 끄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기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손녀딸 정말 똑똑하네.”

맘이 좀 진정된 나도 딸아이에게 한 마디 해주었다.

“네가 엄마보다 낫구나. 엄마는 너무 놀라 허둥대기만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 동서는 허둥대는데 승현이는 침착하게 냉장고 야채 꺼내서 던지네. 큰엄마도 어쩔 줄 몰라서 있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어쨌든 형님 죄송해요. 아까 튀김기 떨어뜨린 후 튀김기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네요. 제가 다시 새 걸로 살게요.”

“무슨 소리야. 승현이 덕분에 큰 손해를 면했는데. 큰엄마가 승현이에게 톡톡히 사례를 해야겠다.”

자칫 큰 화재나 감전 등으로 변질 수도 있었는데 딸아이의 침착한 대응과 기지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튀김기의 화재로 시댁 전기가 나가 버렸는데 그건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걱정스런 마음에 바로 큰형님이 119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누전차단기에 손대지 말고 전기기사를 불러야 된다고 안내해 주었다. 명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이라 전기기사가 올 상황이 안 되었으나 다행히 작은아주버님의 친구 분 중 전기기사가 있어, 그 분의 도움을 받아 전기를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고, 물을 마구 끼얹다가 정작 불은 끄지도 못하고 감전되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다. 평소 안전 대처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에 안전에 대한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는 말을 듣고, 추석 연휴 때의 일이 생각나서 응모하게 되었다. 딸아이가 불조심 어린이 마당 행사를 위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날의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행사야말로 생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선박 화재 시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사고 없이 전원 구조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비록 사고가 발생했음지라도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혀둔다면 더 큰 사고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가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울러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